

하느님께 이르는 길하신 예수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당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의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복됩니다, 시몬 바르요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바위)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성문들도 그것을 내리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명하셨다(마태 16,13-20).

복음적 도전 앞에 선 부끄러움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 자신 사제이면서도 가끔은 내가 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며 자신의 소명에 대해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곤 한다.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따라나선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안정된 지위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명예나 편리함 혹은 기득권은 모조리 다 누리고 있으니 뒤집어 보면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좋은 강론을 들려주기 위해 혹은 삶에 의미를 던져 주는 복음적 도전을 들려주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지만, 그 복음적 도전이 오히려 나의 삶에서는 메아리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의식에 다다르면 부끄러움에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 솔직히 말해 나는 수도생활을 해오면서 마음 고생은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육신이 노동에 지쳐 고생해 본 적도 없고 먹지 못해 굶주려 본 적도 없다. 늘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고 추위에 짓눌려 눈물을 흘려 본 적도 없다.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기득권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성서를 읽으며 기도할 때도 가난하고 실제로 고생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고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애써 피하며 보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의도를 눈치채고 나면 부끄러운 마음은 한층 더 기승을 부린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해서 고생에 찌든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했고, 바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삶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분께서 보여 주시는 사랑은 인류 만인 공동체를 향하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 없는 힘없는 이들을 향해 기울어진 사랑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편적 사랑의 가치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때로는 과연 하느님께서 부자도 사랑하시는가 하는 교묘한 질문을 던지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적 관심과 사랑을 약화시킨다.

복음서를 읽으며 만나는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하느님께서 지니신 꿈을 간직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지니신 꿈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소경들에게는 눈뜰 것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을 풀어 보내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루가 4,18: 이사 61,1 참고)하시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지니신 꿈이 결국 그분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가를 살펴 보노라면, 그분을 따르겠다는 용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가고픈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은 왜일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그분을 불사른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그분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고 또 선택한 나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왜 두렵게만 느껴질까? 아니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슴 속에서 아무런 열정도 느끼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줄 그 어떤 꿈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양쪽에서 나를 쪼갤 때는 다음의 요한복

음 말씀을 의도적으로 되새겨본다: “이 때부터 예수와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서서 물러가고 더 이상 당신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여러분도 물러가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있으며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요한 6,66-69).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마태 16,15) 하시는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상대해야만 한다. 아니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라고 대답했고, 바울로 사도께서는 “그분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나셨으며,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 권능을 지닌 하느님 아들로 책봉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로마 1,3-4)라고 대답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해방자’라고 이해하며, 아프리카의 신학자들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언어로 예

수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를 '민중' 과 동일시하며 민중의 고난어린 삶의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새 시대를 향하는 염원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동일시한다.

결국 이러한 대답들은 예수가 거기에서 누구였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혹은 내가 왜 예수를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내 인생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적으로 기억된 한 위대한 성인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한복판에서 계시며 내 삶 전체를 좌우하는 그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주의 궁극적 의미를 지니신 '길' (道) 이시거나 혹은 나그네길인 우리 인생 여정의 '이정표' 이시거나 간에, 우리 각자는 자기 나름의 언어와 결단으로 그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충동된 나의 실존적 선택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야만 한다. "그대는 복됩니다. 시몬 바르요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바위)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성문들도 그것을 내리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마태 16.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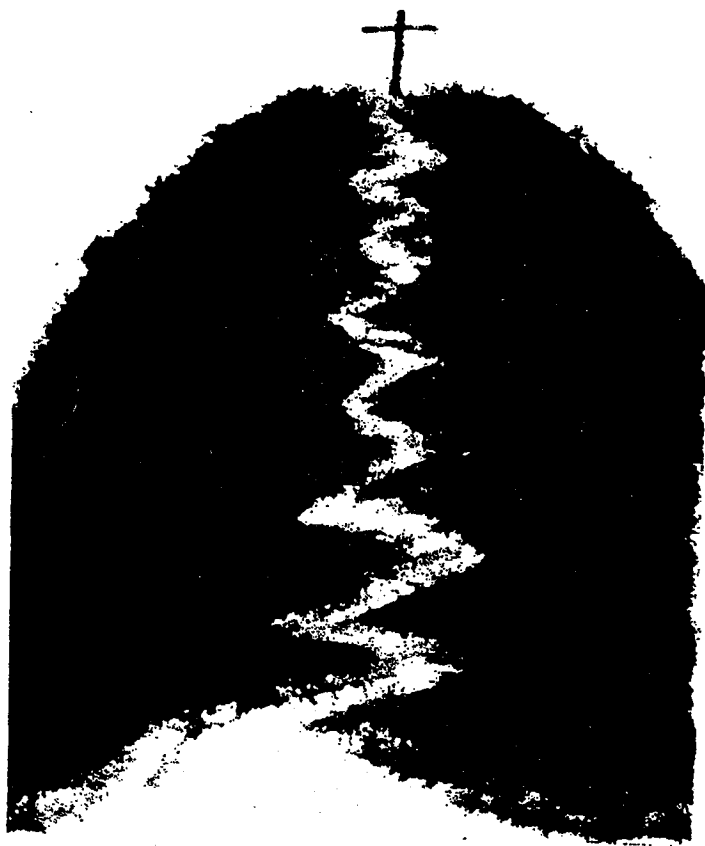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란 결코 개인적인 실존이 아니라 예수를 신앙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라는 맥락에서 파악되는 공동체적 실존인 것이다.

하느님께 이르는 길아신 예수

나는 가끔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곤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요한 14.6)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언어로 풀어 말해 보면, 그분은 바로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 (道)이신 것이다.

진리와 생명이라는 언어는 우리 인간 심성의 저 깊은 곳에



간직된 열망을 대변해 주는 언어이기도 하다. 참다운 것을 찾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다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결국 우리가 유혹자라고 부르는 죄의 힘과 대면하게 한다. 과연 이 참다움과 영원에 대한 갈망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 또 채워질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성서에서 죄란 생명과 진리에 대해 정면에서 반대하는 힘으로서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이다(요한 8,44 참조). 그렇기에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참다운 것과 참답지 않은 것, 생명을 주는 가치와 죽음을 부르는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의 지혜를 주님에게서 배워야만 한다.

예수께서 지나신 가치관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 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께서 지나신 가치관이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사신 삶과 그 삶이 가져온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분께서 누리신 하느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예수께서 지나신 가치관은 가리옷 사람 유다가 하는 말처럼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마태 26,9) 하는 현실적이고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내가 본 30초 짜리 광고의 한 대화이다. 어느 수녀가 다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를 닦아 주고 있는데 배경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의 소리가 있다: "2천 불 주어도 나는 저 일 안합니다." 문둥병 환자를 닦아 주던 수녀가 뒤를 돌아다보며 "저도 안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예수께서 사신 가치관이나 그분을 섬기겠다고 따라나선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가치관은 결코 그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둔 계산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기 헌신의 희생적 가치관인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당신 자신을 사로잡은 열정은 바로 하느님께서 지니신 사랑, 즉 세상을 향한 극진한 사랑(요한 3,16: 13,1 참고)이다. 이 사랑이 수없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삶을 세상과 하느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매혹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정열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담겨진 하느님을 향한 꿈을 좇아 사는 이들! 이들이 꾸는 꿈 속에 주님께서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참다운 생명이란 바로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공동번역 요한 17,3).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생명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상을 위하는 사랑 어린 투신을 의미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신 삶을 관상하며 그분을 배우게 된다. 성서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당신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 옷이 하얗게 변했었다”(루가 9,29)라고 말한다.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수난과 죽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이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가 9,35).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름잡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칠혹 같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지어 불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죽어 무덤에 갇힌 라자로를 되살려 어루만져 새 소명을 주시듯이, 그분께서는 나의 이기적 사욕에 파묻혀 죽어가는 아름답고도 고귀했던 꿈을 되살려 새로운 소명으로 일으켜 주신다(요한 11,38-44 참조).

우리가 주님께서 되살리시는 새 생명의 소명에 충실하게 응답할 때, 아니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을 따라 충실히 걷고자 할 때 우리는 어느덧 하느님께 다다른다.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만나 시달리던 배 위에서 예수를 모시려던 제자들의 수고가 비록 헛수고였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공동번역 요한 6,21). 이런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꿈을 나누며 헌신하려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힘에 부쳐 헛수고처럼 여겨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목적하는 하느님께 다다르고야 말 것이다.

묵상 성구

- 마태 16,13-20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루가 9,28-36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당신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 옷이 하얗게 변했었다.
마태 17,1-13 이처럼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요한 11,1-44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마태 26,6-16 한 여자가 귀중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서 음식상을 받고 계신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마태 21,1-11 보라, 네 임금의 이름이 네게 오신다.

성찰

1.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 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

- 예수님의 전 생애 요약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 안에 머무시오.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누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도 지니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더 이상 종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사실 종은 자기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세운 것은, 여러분이 떠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오"(요한 15,9-17).

사랑에 헌신한 삶의 아름다움

사랑에 모든 것을 헌신해 자신의 삶을 불태운 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내 마음은 늘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부풀어오른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사랑에 헌신한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랑의 눈,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이다. 언젠가 기도하면서 떠오른 인식이지만,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머무시면서 그가 지닌 가장 순수하고 사랑어린 꿈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신다. 그 사랑어린 꿈의 눈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느님의 장엄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때로는 아프지만 희망하며 사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비록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이 가장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들이며 세상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가꾸는 이들이다.

사랑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늘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오”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겨운 요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랑은 결코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결심이기에 오히려 삶의 어렵고 어두운 구석에서 그 진실함이 증명되어야만 하는 실체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가끔 “나는 나 자신을 사랑에 봉헌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신 성녀 소화 데레사의 말씀이 쓰여진 성녀의 상본을 꺼내어 본다. 이 상본을 바라볼 때마다 그 단순한 말마디에 담긴 사랑의 의미 앞에 압도되고 만다. 사랑이란 늘 아픔과 희생,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동반하기에 단지 감정적 느낌의 흐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거기에 내어놓기를 요구하는 절대적 가치임을 새삼스럽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성녀께서는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웃을 모두 ‘사랑’으로 이해하셨기에 당신의 삶 전부를 걸어 그 ‘사랑’을 향해 봉헌하셨고,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좌절들 앞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치가 지닌 아름다움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한없이 아름답게 만든다. 삶을 사랑에 내어준 이들의 모습 속에는 열음처럼 차가운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함이 담겨 있다. 사랑에 매료되어 알 수 없는 꿈을 꾸는 이들의 모습 속에는 잔잔한 거룩함이 담겨 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꿈 속에 우리를 담아 하느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심어 사람의 마음을 후리시는 그분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실 것이다.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쉴 새 없이 그분께 매료되어 알 수 없는 꿈을 함께 꾸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세상은 이래서 정말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요한 15.12).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 전부를 내어주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계명은 그분의 삶 전부, 즉 그분의 탄생,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통합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리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류 전체 역사를 주름잡으시는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강생하시는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이 요구하는 구체성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는 오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 모양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의 삶 주변에서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 주지 못하는 이가 결코 보편 인류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랑은 그래서 늘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이들을 향해 기울어진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지니는 또 다른 모습은 나자렛 예수께서 사신 숨은 생활에 담겨 있다. 진정하고 참다운 사랑은 늘 자신을 가리지 결코 자신을 애써 드러내지 않는다. 사랑은 아무런 보수도 요구하지 않기에 인내스럽다. 예수께

서 나자렛에서 숨어 지내신 생활이 이러한 사랑의 무보수성을 보여 준다.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서 늘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요구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허울에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가리고 있는 거짓일런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적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다. '진리'라는 언어는 인간의 심성 깊숙한 곳에 심어진 갈구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인간 누구나가 다 참다운 것을 추구한다. 사랑이란 이렇듯 탐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인가를 계속 알기 위해 추구한다. 군중들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이러한 탐구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리라.

예수께서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 나라를 주변 이웃들에게 펼치시고 가르치시며, 만나는 모든 이들과 사귀셨다. 예수님의 활동은 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지니고 있는 연대성이 드러난다. 사랑은 흩어져 갈라진 사람들을 모아 일치를 이끌어낸다.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기에 늘 관계 안에서, 즉 공동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회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이라는 가치에 헌신한 삶이 다다르게 될 일차적 종착역을 보여 준다. 희생과 죽음,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이끌어가는 일차적 방향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이 가져 올 결정적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사랑이 다다른 일차적 종착역에서는 사랑에 헌신한 이를 무참히 짓밟아 박살내어 버리지만, 그 안에는 결국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담겨져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랑이라는 가치에 우리의 삶 전부를 헌신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웃을 위하시는 하느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인지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네 온 마음으로, 네 온 영혼으로, 네 온 정신으로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이와 비슷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마태 22,37-40). 사랑이란 단지 지성적이거나 혹은 의지적 또는 감성적 영역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인격 전체의 영역에서 표현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전폭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은 결코 지성 속에 계신 사변적 신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시기에 마음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며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웃을 한없이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



리 인간이 하느님의 이웃들이다. 구약성서에 전해지는 십계명의 구조를 외적으로만 관찰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향한 정의로운 사랑임을 알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 주위의 버림받고 고생하는 이웃들 속에 더 밀접히 머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로 그러한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투신하기를 요구하신다.

사랑의 절대적 의무

사랑의 이중 계명, 즉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관계를 바

라보는 시각은 성서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역학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지평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시는 듯하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랑의 의무를 말씀하신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공동번역 로마 13.8.10). 반면에 요한 사도는 하느님 사랑이라는 지평에서 이웃 사랑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선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7-8).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 그릇된 입장을 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힘은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나오는 힘이다. 사랑의 주체는 오직 하느님이시라는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 내 안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이끄시는 것이다. 내가 사랑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원천적 힘이 내 안에서 내 주변의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주체는 오직 하느님이실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하는 힘의 도구로서 그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원천적 동기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 안에 머무시오.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요한 15.9-10.12).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유언의 말씀이시기도 하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에 그분이 보여 주신 사랑이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절대적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랑은 새 창조의 힘

사랑에는 원리가 있다. 성 이나시오 로운라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선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란 서로 무엇을 주고 받는 데 있는 것이어서, 사랑하는 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랑받는 이에게 선사하고 또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알려 주며, 사랑받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관계 안에서 성립되고 완성된다. 사랑은 그래서 늘 구체적이기를 원하며, 구체적인 나눔의 현장에서 용서와 치유를 베푼다. 사랑의 나눔은 늘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기에 사랑의 힘 그 자체는 언제나 창조적인 힘이다. 사랑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포근하며 생기 있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성 바울로께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공동번역 1고린 13,13) 하시며 사랑의 우위성을 말씀하셨다.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힘인 것이다.

묵상 성구

- | | |
|------------------------|---|
| 요한 15,9-17 | 내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
| 로마 13,8-10 |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 마르 12,28-34 |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은 어떤 것이니까? |
| 1요한 4,7-8 |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
| 1고린 13,1-13 | 이제는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
| 1요한 2,7-10;
3,11-23 |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실과 진실로써 사랑합시다. |

성찰

1.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헌신해 살고 싶은 열망을 때때로 경험하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요구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